



부속문서 2

## 심포지엄 및 워크숍 보고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시 교육문화과학부 회의실

날짜: 2009년 9월 7일

몽골의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한 워크숍

장소: 몽골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책 궁전

날짜: 2009년 9월 8일 - 10일

---

### 배경

유네스코는 2003년 10월 17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마련, 채택했으며 이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국제법 체계이다.

몽골은 2005년 협약 비준 이후 국내 및 지역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연구, 진흥, 계승을 위해 다양한 대규모 조치와 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몽골에서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한-몽골 공동 프로젝트이다.

유네스코 프로그램인 ‘인간문화재’ 제도는 다양한 제목과 이름으로 전세계 수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다. 인간문화재란 무형문화유산의 특정 요소를 공연하거나 재창조하는 데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인간문화재 프로그램은 재능 있는 전통 보유자와 전승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는 보유자들의 업적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려는 의지를 기준으로 인간문화재를 선정한다. 인간 창의성의 증거물로 간주되는 전통과 표현의 가치, 문화 및 사회적 전통의 뿌리, 해당 지역사회에 이들이 대표적으로 갖는 특성, 사라질 위험을 고려하여 인간문화재를 선정한다.

## 심포지엄의 목적

유네스코 몽골위원회는 2008년 이래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한국 문화재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몽골에 유네스코 프로그램인 ‘인간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시해 왔다.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은 프로젝트 체제 내 활동을 소개하고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의의와 가치, 현황, 무형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보호, 진흥, 유지, 전수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 및 조치와 관련 국제법 체제에 대해 일반 국민, 연구원, 전문가, 의사결정권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주요 목표는 한국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과 보유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 워크숍의 목적

몽골의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간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한 워크숍(이하 워크숍)의 주목적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국제법 체제 및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증진, 활성화, 유지하기 위한 법적 체제에 따른 국제 및 국내 프로그램, 프로젝트, 조치, 활동에 대해 유산 보유자들의 인식을 고취하고 유산 보유자와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적절한 사회적 명예와 인정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유산 보유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개인의 관행과 기술을 공유하는 것 역시 주목적이었다.

## 주관

-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 몽골 문화유산센터
- 몽골 문화연구협회
- 역사문화 유산보호재단
- 아·태무형유산센터
- 한국 문화재청

## 심포지엄 및 워크숍 참가자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뿐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의사결정 및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단체의 대표들이 심포지엄과 워크숍에 참여했다.

-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 유네스코 몽골위원회
- 몽골 특별검사청
- 아·태무형유산센터
- 한국 문화재청
- 한국 문화재보호재단
- 몽골 과학원
- 문화예술위원회
- 몽골 문화예술대학
- 울란바토르 문화예술청
- 몽골 문화연구협회
- 역사 및 문화유산 보호재단
- 문화유산센터
- 몽골장가협회
- 몽골 게르 개발센터
- 몽골 내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

## 심포지엄 본 회의 내용

심포지엄에서 국제 및 국내적 수준에서 취해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와 활동에 대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분야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인식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와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의견제시, Q&A,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몽골
- 몽골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조치 및 목표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 구축’을 위한 한국-몽골 공동 프로젝트 소개
- 전통공연예술과 보호 및 진흥 문제
- 무형문화유산 수단으로서의 언어 등 구전 및 표현과 이들의 보호
- 몽골 전통공예 보호 및 진흥
- 자연 및 우주 관련 지식과 관습 및 이들의 보호와 진흥 문제
- 사회적 관습, 의식, 축제 및 이들의 보호 문제
- 몽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체제
- 정식 교육 커리큘럼에서의 무형문화유산 및 커리큘럼 개선방안
- 무형문화유산과 도제제도



심포지엄 참석자들

## 워크숍 내용

워크숍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의견 제시, Q&A,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몽골의 규칙 및 규정
- 한국의 제도적 무형문화유산 보호
-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선정 기준
- 무형문화유산 등록, 문서화, 데이터베이스화 문제
- 한국문화유산재단의 무형문화유산 활용 및 홍보 프로젝트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몽골의 법적 근거 개선
- 몽골 민속춤 비엘지 전수
- 몽골의 발원 찬양가 및 찬가 전수
- 몽골 서사시 툴리의 전수
- 현지 조사팀의 몽골 농촌 지역 무형유산에 대한 요약 보고 및 결과 소개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유산 전수 활동과 관련해 유산 보유자들이 당면한 문제와 도전과제를 논의 및 토의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전승자와 보유자 간 상호 이해가 높아졌으며, 관련 지역사회, 단체, 개인들과 함께 유관 NGO 와 정부기관 간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협력 정신이 강화되었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산 보유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심포지엄과 워크숍에서 습득하고 이해한 모든 정보를 홍보 및 배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와 관계자들

### 논의 결과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폭 넓게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활동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 및 활동의 효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통해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들뿐 아니라 정부와 비정부 단체, 시민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권고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전승자, 연구자 및 해외 참가자들

## 결론

심포지엄과 워크숍 모두 큰 성공을 거두어 이후 후속 활동으로 이어졌다. 상기 언급한 발표 자료 및 기타 실무 문서뿐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관련 문서집’, ‘몽골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목록’ 등 유산보유자와 관련 담당자를 위한 매뉴얼 등 다양한 정보와 자료의 배포를 통해 참석자들은 해당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들에게 상기 언급한 문서를 배포하고 이 문서에 대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유산을 다음세대로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호, 특히 보유자 및 전승자를 독려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제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결과 과거 회의 및 공동 프로젝트 체제 하에서 수행한 활동의 결과물로서 몽골과 한국 전문가 및 스페셜리스트 간 협력을 증진 및 유지하고 협력 방식과 수단이 확대되었다.



유네스코 프로그램 몽골 ‘인간문화재 제도’ 시행에 관한 워크숍 참석자들, 2009년 9월 9일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측의 전문성이 전체 프로젝트 이행의 효과와 생산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지역 유산 보유자, 의사결정권자, 무형문화유산 분야 유관 단체 간 상호 이해 강화에도 기여했다.

워크숍 마지막에는 유산 보유자들의 탁월하고 뛰어난 실력과 기술을 모든 참석자들에게 시연하기 위한 소규모 공연이 진행되어 유산 보유자들의 자신감을 높였고, 의견, 기술, 재능 공유를 촉진했으며, 참석자들 간 관계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했다.

결론적으로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국내 및 국외 연구진, 유산 보유자, 전문 센터, 연구기관, 현지 단체 간 향후 더 많은 지원과 활동을 위한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